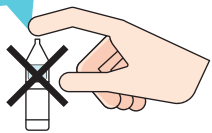


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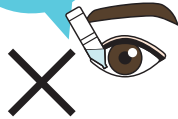
- ▶ 사용 즉시 폐기하며, 약액이 남아도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재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▶ 유효기한과 보관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킵니다.
- ▶ 손상되었거나 개봉되어 있는 1회용 점안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▶ 한번 개봉된 1회용 점안제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.

잘못된 사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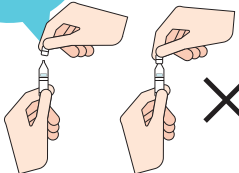
손끝 세균에 오염돼요.



눈에 닿지 않게 하세요!



보관하였다 재사용하지 마세요!



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어 쓰지 마세요!



점안액이 나오는 용기의 끝부분이 손이나 눈에 닿으면
점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.

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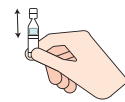
Step 1.
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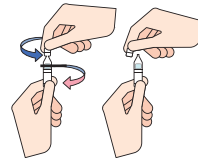
Step 2.
점안할 1회용 용기를 분리합니다.



Step 3.
용기를 세워서 잡고 약액이 용기의 하단에 있는지 확인하고, 현탁액과 같은 제제의 경우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.



Step 4.
한 손으로 제품상단의 손잡이를, 다른 손으로 제품 하단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용기와 뚜껑이 분리됩니다.



Step 5.
최초 사용시 1~2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립니다.



Step 6.
용기의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, 눈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당긴 후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지시된 양을 떨어뜨립니다.



Step 7.
점안 후 *비루관을 2~3분간 눌러 약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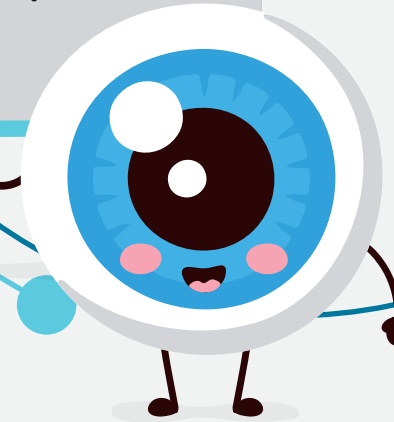


*비루관: 눈물주머니에서 코 쪽으로 통하는 관.

Step 8.
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,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립니다.



1회용 점안제,
한 번만 사용하고
버리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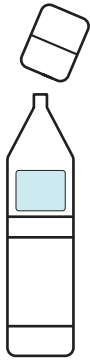


1회용 점안제 안전하게 사용하기



1회용 점안제란?

보존제 첨가여부에 따른 차이



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



보존제가 있는 다회용 점안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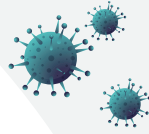
💧 1회용 점안제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 등은 안구 자극의원인이 될 수 있으며, 소프트렌즈를 변색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

💧 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,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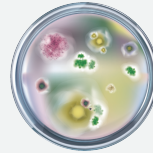
💧 1회용 점안제는 어떠한 형태라도 1회만 사용하세요.

1회용 점안제, 왜 한번만 사용해야 할까요?

미생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



바이러스



곰팡이



박테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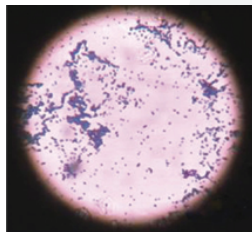
1회용 점안제를 여러 번 사용하면 제품내 미생물이 증가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1회용 점안제는 일단 개봉이 되면 더이상 밀봉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무균상태라 할 수 없으며, 이후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연구결과 점안제를 사용할 때 눈썹이나 눈꺼풀 또는 손에 용기 끝이 닿으면 약액이 오염되어 손에 상주하는 균주와 동일한 균이 개봉된 점안제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



1회용 케토롤락 점안제에 실험자의 손에 닿은 면봉으로 도말 후 24시간 배양 결과



그람양성구균



황색포도상구균

그림 : Sharma, Indian journal of ophthalmology (20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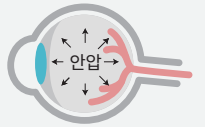


점안제의 다양한 적용 목적



먼지를 씻어내고 눈물 생성을 정상화시키는 안구건조증 치료제

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낮추는 안압감소제



알레르기로 인한 염증을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와 각결막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제



세균잡는 항생제

올바른 사용전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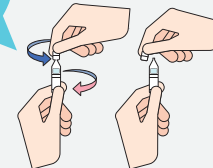
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!



현탁액은 골고루 섞어주세요!



캡을 완전히 분리해 열어주세요!



사용 전 한두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세요!

